

김영건(金永鍵)의 베트남 연구 동인(動因)과 그 성격:*

1930-40년대, 그의 “전변무상(轉變無常)”한
인생 역정과 관련하여

윤 대 영**

I. 머리말

인도차이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세기 후반에 한국으로 전달된 베트남 소식은 20세기 초반에도 계속해서 유입되었다. 특히, 1905년부터 『월남망국사』가 한국 사회와 해외 교민 사회에 유통된 이후,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각종 학회지와 언론의 베트남 알리기로 이어졌다. 1910년의 한일병합 이후 국내의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베트남 알리기 노력은 1920년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서서히 부활하고 있었다.

특히, 1930년대부터는 베트남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단행본 형태의 저작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여성(李如星)의 『세계약소민족운동 개관』(경성: 세광사, 1930)과 홍목(洪穆, 일본명 오야마 유키노부[大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경백(鏡白)동양사연구기금’의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김영건의 학적 관련 기록 열람에 협조해 주신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경북고등학교 측에도 감사할 드린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vinhsinh98@hotmail.com

山幸伸)의 『印度支那動亂四十年史』(1943)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민족운동 전개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 모국의 독립운동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저술들이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하는 소위 ‘월류(越流)’는 이처럼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김영건의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東京: 富山房, 1943, 315 p.)라는 책을 필자가 처음 접하게 된 시점은 1990년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조선의 교류 성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이 연구서는 일종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국인들의 베트남 연구 동향에 대해 문외한이던 필자는 어떻게 이와 같은 진지한 학문적 성과가 식민지시기의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건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국학자, 문학평론가, 인류학자, 역사학자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국어학자 이송녕(1908-1994)이 주도가 되어 1960년 7월에 간행한 『국학연구논저 총람』에서는 김영건의 『조선개화비담』(서울: 정음사, 1947), “임진왜란과 견일(遣日)사절” (『향토』1(1948.3)), 『여명기의 조선』(정음사, 1948) 등을 소개하고 있다(국학연구논저총람간행회 1960: 235, 321, 326). 이후, 실천적인 문학 평론가로서의 모습이 1988년부터 조명되기 시작했다. 『건설기의 조선문학』에서는 평론가 김영건이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1946년 제1회 조선전국문학자대회준비위원으로 피선되어 “세계문학의 과거와 장래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조선문학가동맹 1988: 201). 한편, 임동권은 1996년 당시 국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류학자 김영건에 대해 다루면서, 1936년과 1943년에 『民族學研究』(日本民族學會)에 발표된 그의 글과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의 학회 활동 등을 한국

인류학계에 소개했다(임동권 1996: 62-63; 임동권 2004: 284-286). 전경수는 ‘한국인류학 백년’을 일별해 보는 기회에 인류학을 주전공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인류학적인 연구와 활동을 했던 선각자들의 행적을 더듬어 본다는 차원에서, 임동권의 연구 성과와 필자 자신의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1931-1945년 시기 김영건의 이력과 학문적 성과를 연구사적인 차원에서 조망했다(전경수 1999: 95, 98-100, 112).

역사학자들의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1998년 유인선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역사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처음 발표된 글이 바로 1948년 김영건의 “안남국사신 창화(唱和)문답록”임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김영건 1948: 50-59; 유인선 1998: 221).¹⁾ 조흥국은 유인선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도 『印度支那に於ける邦人發展の研究: 古地圖に印されたる日本河に就いて』(杉本直治郎·金永鍵, 東京: 富山房, 1942)와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와 같은 두 가지 연구서에 의거하여, 김영건이 일본과 대륙 동남아 특히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모두 일본인들의 동남아 진출사에 관한 것으로서,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달한 시기에 발표되어 당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수립의 망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용적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조흥국 2001: 49).

이상에서 살펴 본 김영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볼 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우선, 임동권도 지적하는 것처럼, 김영건의 출생 연도와 고향, 학력이나 경력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 유인선에 의하면, “안남국사신 창화문답록”은 1943년에 처음 일본어로 쓴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に就いて”(金永鍵, 1943a: 235-242)에 약간의 가필을 한 것이다. 『여명기의 조선』에는 “제주도민의 안남표류기”(원명: “安南に漂流せる濟州島の住民”)도 실려 있으나, 이는 논문이라기보다 짧은 소개의 글이다. 그 외에, “몽고병을 격퇴시킨 화산군(花山君) 이용상(李龍祥)의 사적(事蹟)”(원명: “安南花山君李龍祥の事蹟”)도 『여명기의 조선』에 게재되어 있다.

(임동권 2004: 285). 또한, 1942-1943년 소위 ‘어용학자’로 활동하던 김영건이 어떻게 해방 이후에 실천적 평론가로서 조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영건의 1930-40년대 베트남 연구는 어떠한 현실적 상황에서 출현할 수 있었으며, 그의 과학적인 학문적 행보와 실천적인 행적이 제2·3세대 동남아 연구자들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다행히도, 필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10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단서들을 다양한 문헌 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해 조금씩 포착해 나갈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를 그의 인생 역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가 출현할 수 있었던 김영건의 학문적 이력과 그 이후의 지적 변용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1940년 이래 그의 “전변무상”한 인생(김영건 1947a: 3)과 관련하여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II. 김영건의 초기 이력과 EFEO

1930-4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김영건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일까? 우선 그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제10권(1939.4)의 “본호집필자소개”는 김영건의 원적을 경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후의 이력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은 바로 우연히 발견하게 된 『2007 경북동창명부』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김영건은 1927년 3월의 경성제이공업고등보통학교 제2회 졸업생 명단에 올라있다(경북동창회 2007: 52).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었던 이승녕이 후배 김영건의 국학

관련 연구 성과를 이미 1960년에 소개한 것도 단순히 우연만은 아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경북고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입수하게 된 김영건의 학적부는 그와 관련된 가족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10년 3월 18일생인 김영건의 원적은 경성 통인정(通仁町: 현재 종로구 통인동)으로 되어 있다.²⁾ 황해도 연안, 해주, 웅진, 연백 지역의 군수와 황해도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역임한 김정현(金定鉉, 1868-?)의 이남이었던 그는 부친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과의 촉탁으로 전근함에 따라 해주고등보통학교 1학년을 마치고 1923년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어머니, 형, 형수, 조카 등과 함께 경성에 거주하게 된 것이었다(朝鮮總督府 1910-1914, 1916-1921, 1924; 內閣印刷局 1913-1917; 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 98;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2008: 29).³⁾

경성제이고보 졸업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경수는 김영건이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이후, 베트남의 하노이(Hà Nội)에 있는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Viễn Đông Bác Cổ Học Viện[遠東博古學院, 이하 프랑스 원동학원으로 약함]⁴⁾에 발령을 받았다고 추측하고 있다(전경수 1999: 97-98). 그러나 현재까지 김영건이 남긴 저작들이나 방증 자료들 중에서 그의 프랑스 체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원적의 주소와 당시의 현주소도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는 1925년 4월 1일의 학급관계의 개정에 의하여 교명이 '경성제이공립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경북칠십년사 편찬위원회 1991: 88).

4) 1898년 12월 15일에 설립된 프랑스 원동학원은 프랑스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연구자들이 남긴 인도차이나의 문화, 지리, 역사, 관습, 종교 등에 관한 연구 성과는 오늘날 높이 평가되고 있다(金永鍵 1932: 126; 유인선 2002: 301). 프랑스 원동학원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Bouchez 1995: 175-189와 Clémentin-Ojha and Manguin 2007 참조.

다만, 졸업을 전후한 김영건의 구체적인 활동 시기 및 양상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자료는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2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학적부에 나타나 있는 그의 기호가 “작문과 문학”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1> 1927-1931년, 김영건의 시작(詩作)

제목	간행시기
“고요한 저녁 거리 위를”	1927.2
“가을이라고요”	1927.2
“病室의 壁”	1930.5
“錘”	1930.8
“늙은 水夫에게”	1930.12
“群衆”	1931.1.2

<표 1>에 소개된 “우울한” 시들은 1927년 2월부터 1931년 1월 사이에 『조선문단』, 『대조(大潮)』, 『해방』, 『조선일보』 등에 발표했던 습작들이었다(김영건 1948c: 102-111).⁵⁾ 그밖에도, 『프로레タリア文學』 1928년 12월호와 『無産者』 1929년 “×號”에 소설 “苦力”과 “同盟罷業”을 각각 게재했음을(김영건 1948c: 112) 볼 때, 김영건은 청년 시절 좌익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후 김영건이 1930년대에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프랑스 원동학원의 도서관 사서로서 근무했음은 이미 밝혀져 있다(松本信廣 1936: 66-67; 임동권 2004: 285-286; 전경수 1999: 98; 유인선 2007: 69). 그러면, 과연 김영건은 정확히 언제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갔던 것일

5) 김영건은 ‘김명희(金明姬)’라는 가명으로 “고요한 저녁 거리 위를”과 “가을이라고요”를 『조선문단』 1927년 2월호에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운동가 김려수(金麗水, 본명 김재명[金在明], 1901-1930)는 “편집후기”에서 “신진을 소개하자는 생각으로 금월호에는 원고 들어온 중에서 김명희씨의 시이편을 택해야 실었다”라고 게재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까?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당시 일본 동남아 연구자들의 증언과 프랑스 원동학원에서 발간하던 학술지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이하 BEFEO로 약함)을 검토해 보았다.

1931년 9월 18일 발발한 만주사변 직후 유럽에서 귀국하던 스키모토 나오지로(杉本直治郎, 廣島文理科大學 東洋史研究室 소속)가 인도차이나에 잠시 체류하던 중 김영건을 알게 된 사실과 1931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BEFEO 31에 『平家物語』의 프랑스 번역본⁶⁾에 대한 서평을 쩌 반 잠(Trần Văn Giáp, 1898-1973)⁷⁾과 함께 김영건이 게재한 것을 보면, 그는 1931년부터 프랑스 원동학원에서 활동을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杉本直治郎·金永鍵 1942: 4; BEFEO 1931: 526-528). 실제, 김영건 자신도 1931년 세데스(George Coedès, 士德, 1886-1969) 박사를 알게 되어 프랑스 원동학원에 와서 일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히고 있다(金永鍵 1939a: 154). 그리고 1932년 프랑스 원동학원의 휘보를 보면, 김영건은 응우옌 반 또(Nguyễn Văn Tố, 1889-1947), 응우옌 반 코안(Nguyễn Văn Khoan), 쩌 반 잠 등과 함께 일종의 조교[assistant]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1932년 5월 1일 프랑스 원동학원에 의해 정식으로 고용되어 현지 직원이었던 레 즈(Lê Du, 1885?-1957)를 대신하여 일본서 도서실의 보조사서[bibliothécaire-adjoint]의 자격으로 일본과 한국 자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1936년 4월에는 일본도서관 주임을 맡기에 이르렀다(金永鍵 1932: 125; BEFEO 1933: 416-417; 金永鍵 1943a: 松本信廣 “序”, 金永鍵 “自序”).

보조사서와 일본부 주임으로서 프랑스 원동학원의 일본과 한국

6) *Épisodes du Heiké Monogatari*, traduits par S.(Suéo) GOTO et M. Prunier, avant-propos de M. Sylvain Lévi, Paris : Ernest Lereoux, 1930, 148 p.

7) 1916년부터 프랑스 원동학원에서 근무하다가 1927년이 되어 파리의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à la Sorbonne에서 유학한 쩌 반 잠은 1932년 귀국하여 원래의 업무를 재개했다(Nguyễn Q. Thảng 2006: 1418).

자료를 관리하던 김영건은 다양한 서적들을 원동학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1931년부터 1939년까지 기증한 도서는 총 72종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행본 52종, 학술지 11종, 논문 9종이다.⁸⁾ 내용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부터 나열하면, 역사류(23종), 어학류(21종), 문학류(8종), 사전류(5종), 서목류(5종), 철학류(3종), 고고류(2종), 족보류(1종) 등이었다.⁹⁾ 1937년 조선총독부와 조선중앙불교전문학교가 각각 서법(書法)에 관한 도서와 불교 계통 서적을 프랑스 원동학원에 기증한 것과(BEFEO 1937: 560, 568-569, 584) 비교해 본다면, 김영건은 역사, 어학, 문학 등의 방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역사와 관련해서는 조선사,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사, 향료를 둘러싼 아시아와 서구의 관계사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조선 어학회에서 출판된 서적이거나 『한글』, 『정음(正音)』 등과 같은 학술지를 기증했던 것을 볼 때, 베트남 현지 사회에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한글』은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운재(1888-1943)가 정기적으로 김영건에게 보내주었던 것을(김영건 1937a: 464) 다 읽은 후 다시 프랑스 원동학원에 기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건의 활동은 도서 기증에만 그치지 않았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펠리오(Paul Pelliot)가 1904년에 BEFEO에 발간한 “Deux itinéraires de Chine en Inde à la fin du VIIIe siècle”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명에 대한 색인 작업을 담당했다(Pelliot 1904: 121-403; Yung Kun Kim 연대미상; Gutman 1976: 360). 또한, 1933년 9월에는 과거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있었던 중부 해안의 호이 안(Hôï An)을

8) 기증 도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지 사항은 BEFEO 1931: 571, 585, 603; BEFEO 1933: 438, 447, 457, 1090; BEFEO 1934: 741; BEFEO 1935: 448; BEFEO 1936: 543, 549, 551, 555, 562, 564-565, 569, 574-575, 581, 584; BEFEO 1937: 560, 565, 567-568, 582, 584, 591, 595-597; BEFEO 1939: 276-277, 286-288, 304-305, 311, 313, 319 등을 참조.

9) 기증 도서의 유형별 분류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분류에서 제시된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직접 방문하여 일본 역사 유적의 흔적을 탐구하는 등의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1937년 9월에는 당시 프랑스 원동학원의 총비서겸사서(*secrétaire bibliothécaire général*)였던 뮈스(Paul Mus, 1902-1969)의 요청에 의해, 16-17세기 인도차이나 지역과 일본과의 관계를 연구하던 중에 사망한 페리(Noël Peri, 1865-1922)의 연구를 재개할 목적으로 전통 항구인 다 냥(Dà Nẵng)과 호이 안으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BEFEO 1933: 1049; 金永鍵 1943a: 1). 그 이외에도, 1936년 프랑스 원동학원과 보성전문학교의 문화 교류 과정에서 있음직했을 법한 김영건의 역할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하노이의 프랑스 원동학원과 고고 유물, 민속 유물, 미술품 등을 교환하면서 신라의 전와(磚瓦)와 고려의 자기 등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동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김영건이(김영건 1947a: 82) 양 기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⁰⁾

개인적인 연구 이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김영건이 점차 베트남어에 친숙해져 가는 과정을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자료를 정리하던 김영건에게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1932년 당시에는 ‘전서(全書)’를 ‘zen-se’로 ‘경전’을 ‘kyeng-zen’으로 전사(轉寫)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ㄱ’을 ‘e’로 ‘ㅋ’는 ‘ye’로 표기했다(BEFEO 1933: 447, 457, 458; BEFEO 1939: 286, 288, 305, 311). 그런데 적어도 1936년부터는 ‘조선’을 ‘Zosŏn’으로, ‘어법’을 ‘ŏ bob’으로, ‘최현배’는 ‘Ch’oi Hyŏnbai’로 표기하기 시작하여, ‘ㄱ’는 ‘ŏ’로 ‘ㅋ’는 ‘yŏ’로 표현했다(BEFEO 1936: 543). 기존의 로마자에 존재하지 않는 베트남어의 독특한 모음 ‘ŏ’는 한글의 ‘ㄱ’ 발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했던 것이다. 이러한

10) 유인선은 김영건이 이용상 연구를 위해 1936년 여름 황해도 옹진을 방문했음을 지적하고 있다(유인선 2007: 69). 1947년 김영건의 회고에 의하면, 프랑스 원동학원 “박물관에는 신라, 고려, 이조시대의 고물(古物)들도 수집되어 있었다”(김영건 1947b: 2).

사례는 ‘一’를 ‘𐄂’로, ‘니’를 ‘𐄃’로 표현한 것에서도(BEFEO 1939: 286, 288, 305) 확인할 수 있는데, 베트남어 발음에 점차 익숙해진 김영건이 프랑스 원동학원의 프랑스 학자들이나 베트남 관계자들의 정확한 한글 발음을 유도하고자 고안해 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베트남어를 활용한 것 이외에도, 김영건의 학문적인 활동은 아래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표 2> 재하노이 시기 김영건의 활동

시기	서평 / 목록 / 논저
1931	서평: <i>Épisodes du Heiké Monogatari</i> , traduits par S. GOTO et M. Prunier, avant-propos de M. Sylvain Lévi, Paris : Ernest Lereoux, 1930
	불교 관련 자료 소개
1932	서평: 伊達光美, 『日本寺院法論』, 東京: 嚴松堂書店, 1930
1934	서평: 郡司喜一, 『十七世紀に於ける日暹關係』, 東京: 外務省, 1934
1937.4	“안남 하노이 통신”, 『한글』(조선어학회), 제44호(제5권 제4호)
1938	"Note sur la nouvelle romanisation officielle du japonais," <i>BEFEO</i> , tome 38

이미 언급한 것처럼, 김영건은 1931년에 『平家物語』 불역본에 대한 서평과 해제를 동료 쩌 반 잡과 함께 작성하면서 활동을 개시했다(BEFEO 1931: 526-528). 또한, 동년에 세데스, 쩌 반 잡 등과 함께 불교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김영건은 1931년 공동 저자에 의해 파리에서 간행된 *Bibliographie bouddhique*¹¹⁾에 누락되어 있는 『佛敎研究』, 『密敎研究』 등의 잡지와 쓰지모리 요오슈우(辻森要修)의 『學界綜覽』을 보충하고, 1929-1930년에 간행된 일본의 저서와 박사논문 목록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지적했다(BEFEO

11) M. J. Przyluski et al., *Bibliographie bouddhique*, Paris : Geuthner, 1931, 97 p.

1931: 546-550). 아울러, 1932년과 1934년에는 각각 다테 미쓰요시(伊達光美)의 『日本寺院法論』과 군지 키이치(郡司喜一)의 『十七世紀に於ける日暹關係』에 대한 서평을 발표하기도 했다(BEFEO 1933: 1033-1034; BEFEO 1934: 704-707). 1938년에는 일본어의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에 대해 정리하고 소개하여 프랑스 원동학원도 이 방식을 채택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Kim Yung Kun 1938: 306-308).

이처럼, 김영건은 프랑스 원동학원에서 일본의 문학, 종교학, 역사학, 언어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개척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937년 4월 “안남 하노이 통신”이라는 글을 『한글』(조선어학회)에 발표하여 한국학 분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김영건 1937a: 464-465).¹²⁾ 이미 1936년부터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김영건은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대해 이운재에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외국말(자연을 묘사하는 음)을 한글로 고쳐 쓸에 있어서는 그의 흘소리와 닿소리와 또는 첫소리와 나중소리를 맞추는 법을 문법으로 정하지 말고, 자유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주장했고,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â’는 ‘·’로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¹³⁾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김영건은 하노이 프랑스 원동학원에 근무하면서 점차 연구 경력을 쌓아나갔던 것이다. 1937년 프랑스 원동학원에 고고학 분과가 창설되었을 때 기념 촬영한 두 장의 사진에 김영건으로 보이는 동그란 테의 안경을 쓴 한국인이 브자씨에(Louis Bezacier, 1906-1966), 부원장 고루브(Victor Goloubew, 1878-1945), 원장 세테스, 플라니(Madeleine Colani, 1866-1943), 뒤뵙(Pierre Dupont, 1908-1955), 마니퀴스(Jean Manikus), 레비(Paul Lévy, 1909-1998) 등과

12) 이 글은 1936년 12월 29일에 완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13) 필자와 함께 김영건의 글을 검토한 바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교수 이지영씨에 의하면, 김영건은 당시 한글 연구의 동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함께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Clémentin-Ojha and Manguin 2007: 37, 180-181) 사서와 연구자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¹⁴⁾

Ⅲ. 1940년 이래 한국과 일본에서의 활동

프랑스 원동학원에 근무한 바 있는 응우옌 티에우 러우(Nguyễn Thiệu Lâu, 1916-1967)가 소개한 자료에 의하면, 1939년 12월 23일 당시 본원에 근무하고 있었던 아시아계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맞이하여 기념 촬영을 했는데, 김영건도 맨 앞 줄 왼쪽에서 두 번째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착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Nguyễn Thiệu Lâu 1997: 29; 전경수 1999: 98).¹⁵⁾ 전경수는 “김영건이 1940년 초까지는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중략] 1940년 말과 1941년 초반 사이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일본의 도쿄로 거처를 옮긴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김영건 본인에 따르면, 그는 “1940년에 조선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김영건 1947a: 3).

베트남을 떠나게 된 시점은 1940년 10월 일본군이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북부의 하이 풍(Hải Phòng) 항을 점령하게 되면서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과 관련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 국적의 김영건은 베트남을 떠나 귀국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한다(金永鍵 1943a: 2). 하노이를 떠나온 이듬해에도 세데스 원

14) 당시 김영건이 근무하던 일본도서관은 프랑스 원동학원 모퉁이에 위치한 고고학 분과 건물 2층에 있었고, “아래층에는 칠십이 넘는 노령으로 선사학을 전공하는 풀라니 박사의 연구실이 있었다”(金永鍵 1943a: 1; 김영건 1947b: 2).

15) 사진의 제목은 “Banquet annuel des fonctionnaires asiatiques de l'EFEO, organisé le 23 Déc. 1939”로 되어 있는데, 김영건의 왼쪽에는 응우옌 반 풍(Nguyễn Văn Phong)이, 오른쪽에는 캄보디아인 분 락(Bun Lac)이 앉아 있었다.

장은 부원장 고루브를 통해 프랑스 원동학원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했지만, 김영건은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해 버렸던 것이다(조르즈 쉐대스, 김영건 역 1947: 150).¹⁶⁾

이후의 행적은 일본에서 발견된다. 김영건은 1941년 5월 28일 도쿄의 학사회관에서 일본민족학회의 주최로 “印度支那人類研究所の事業と其の意義”에 대해 강연회를 가졌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일본민족학회의 회원간담회에도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金永鍵 1941a: 425-433; 임동권 2004: 285). 1941년 10월 5일 간행된 『民族學研究』 제7권 제2호의 신입회원 명단에 이름이 있으니, 이때부터 김영건은 일본민족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41년 10월 당시 김영건의 주소는 “東京市 淀橋區 戸塚 1-49 日乃出館 2號”로 되어 있고, 1942년 6월 10일에 간행된 『民族學研究』 제7권 제4호 의하면 “東京市 芝區 白金臺町 1-56의 藤山工業圖書館”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43년 1월의 주소는 “東京市 本郷區 丸山福山町 3 八清莊 28號”로 되어 있다. 1943년 9월 5일에 간행된 『民族學研究』 新제1권 제9호의 회비 영수자 명단에 김영건의 이름이 보이고 “홍종우(洪鍾宇)에 관한 자료”도 재일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임동권 2004: 285; 김영건 1947a: 61), 그 이후 일본에서 활동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을 무대로 활동한 흔적들은 1941년 9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¹⁷⁾ 김영건은 1946년 9월 당시에,

16) 이 말이 끝나자 고루브는 김영건과 “감격의 포옹”을 남기고 헤어졌다고 한다.
 17) 『신문학』(서울타임스사출판국) 1권 2호(1946.6)의 『문학가주소록』에 의하면, 김영건은 “5월 1일 현재 서울 홍파정(紅把町) 120”에 거주하고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홍문동, 어수정동, 월암동, 천변동 등이 통합되어 설치된 홍파동(紅把洞)은 1936년 4월 동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성부 홍파정이 되었으며,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홍파동이 되었다. 홍파동 120번지는 현재 121번지와 함께 ‘50년원조 도가니탕 대성집’의 주차장으

처음부터 나는 조선사를 전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외국의 문헌을 섭렵하는 동안에 조선에 관한 사료들로 내가 조선에 소개해 보았으면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기는 아깝고 하여, 나는 틈 있는 대로 조금씩 노트를 해두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조선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중략] 시국은 긴박을 고(告)해 가며 나도 언제까지나 그 노트들을 꾸리고 다닐 수도 없고 하여 훌훌(忽忽)히 그것들을 정리한 뒤에 하나씩 들씩 『춘추(春秋)』와 『조광(朝光)』의 잡지 위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김영건 1947a: 3). 여기에서 “일찍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노이에 체류하면서 프랑스 원동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을 말하는데,¹⁸⁾ 『춘추』제2권 제8호(1941.9)와 제3권 제8호(1942.8)에 “西伯利亞와 조선의 이민”과 “해외에 소개된 『춘향전』”을 각각 발표했고, 『조광』제8권 제10호(1942.10)와 제10권 제1호(1944.1)에는 “해외에 소개된 『직성행년편람(直星行年便覽)』”과 “조선외교사의 일단”이 차례로 게재되었다. 해외에 소개된 한국 관련 자료에 관심을 갖게 된 김영건은 1890년 파리로 유학을 떠나 기메박물관의 연구 보조자로 일했던 홍종우의 도움으로 불역된 고전 『춘향전』과 『직성행년편람』 등을 소개하여 한국의 고전과 점성술 책이 프랑스 학계에서 반향을 일으켰음을 알렸던 것이다(김영건 1947a: 61).¹⁹⁾ 특히, “西伯利亞와 조선의 이민”에서는 러시아의 ‘뿌실로’가 남긴 문헌을 기초로 1863년 이래 시작된 한인 이주민의 역사를 다루었고, “조선외교사의 일단”에서는 1886년 6월과 1887년 5월 사이에 전개된 조

로 쓰이고 있다.

18) 예를 들어, 김영건은 하노이에 있을 때 홍종우(1854-1913)가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프랑스에 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당시 기메(Guimet) 박물관의 소장으로 있던 죠세프 아갱(Joseph Hackin) 박사에게 서한으로 홍종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김영건 1947a: 60).

19) 『직성행년편람』에 대해서는, 김윤식 1984: 202-209 참조.

선과 프랑스 양측의 외교 교섭 상황에 대해 서술했다(김영건 1947a: 18-25, 40-45).

이와 같은 조선의 대외 관계사에 대한 김영건의 관심은 민족주의 사학자 문일평(1888-1939) 및 1934년 5월에 창립된 진단학회와의 지적 교류가 영향을 미쳤던 듯하다. 문일평은 항상 김영건에게 “무엇인가를 격려해 주었다”곤 하는데, 김영건이 문일평에 대해 “근대 조선의 대외 관계에 관해서 중요한 첫 페이지를 개척해 놓았다”라고 평가하고 이후 러시아와 프랑스와의 관계사에 관한 글을 발표한 것을 고려한다면, 문일평의 학문적 성과가 김영건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던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진단학회 선배들”의 지속적인 격려는 김영건으로 하여금 본인의 “비재(菲材)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이 방면[근대 조선의 대외 관계]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 보고자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김영건 1947a: 3-4). 그래서 해방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 서울 인사동의 대화정에서 개최된 진단학회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김영건은 상임위원으로 간사에 선출되기에 이르렀고(이인영 1947: 153),²⁰⁾ 10월 29일부터 국정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의 대표로 진단학회 위원장 송석하(1904-1948), 이정근, 이원조(1909-1955?) 등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자유신문 45/11/9).

그러나 해방 이후의 격동적인 정국은 김영건이 조선의 대외 관계를 차분하게 연구하거나 교육 방면에서의 학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던 것 같다. 해방 직전부터 김영건이 발표한 글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20) 당시 진단학회에서 결정된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위원장 송석하, 총무 조윤계, 편집 김삼기, 출판 손진태, 재무 송석하, 사업 유흥렬, 간사 김수경, 간사 김영건, 간사 조명기 등이 있었고, 김두현, 도유호, 신석호, 이병기, 이병도, 이상백, 이송녕, 이여성, 이인영 등이 위원의 신분으로 활동했다.

<표 3> 1945-1949년, 김영건의 저술 활동²¹⁾

발표 시기	발표 내용
1945.7	“再出發에 있어 文學的 自己批判: 앞으로 나갈 길을操心하라”, 『신문예』(신문예사), 第一卷 第二號
1945.10	“國際文學”, 『人民報』
1945.11.15	“世界文化的 動向”, 『文化戰線』, 創刊號
1945.12	“演劇과 劇場의 統制 - 劇場委員會를 爲하여 -”, 『藝術(週報)』(建設出版社), 제1권 제2호(통권 제2호)
	“外國文獻에 나타난 五十年前의 朝鮮”, 『建國公論』(大邱: 建國公論社), 제4호
	“국기 이야기”, 『兒童文學』, 創刊號(1945.12.1)
1946.1	“고-고리의 檢察官 - 劇團 ‘全線’ 創立公演을 보고”, 『藝術』, 제2권 제1호(통권 제3호)
1946.1.25-27	“農村啓蒙運動에의 一提案”, 『中央新聞』
1946.2	“歷史文學의 封建的 性格: 特히 女性觀에 對하여”, 『文學』(조선문학가동맹), 第2號
	“英雄: 露西亞文學運動의 一面”, 『藝術』,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1946.3	“朝鮮과 佛蘭西와의 文化關係”, 『人民評論』(인민평론사), 創刊號
	“朝鮮開化秘譚: 京城-釜山間 電信을 우리 손으로 三個月만에 建設한 天品”, 『建設』(建設出版社), 제2권 제2호
	“三一運動과 六十萬歲”, 『朝光』, 復刊號, 123호, 12-1
1946.4	“民主主義의 史的 考察”, 『大潮』(大潮社), 제1권 제2호
1946.7	“世界人類와 機械文明: 唯物史觀의 一見解”, 『人民評論』, 1-2
	알렉산드라 브루스타인, 金永鍵 譯, “『소』聯의 兒童劇”, 『文學』, 創刊號
1946.8.1	“外國文化的 攝取와 民族文化”, 『新天地』(서울신문사), 1권 7호
1946.9	스미스, 金永鍵 譯, “아메리카의 親友들에게: 朝美文化協會獨立祝賀記念講演”, 『新天地』, 1-8
1946.10	“國際文學의 情勢에 關한 報告”, 『新天地』, 1권 9호
1946.11	“조선의 어린이들”, 『新天地』, 1-10
	“歷史文學의 封建的 性格 - 특히 女性觀에 對하여”, 『文學』, 第2號
	“弱小民族의 文學”, 『서울신문』(1946.11.18)
1946.12	“大戰과 國際情勢”, 『新天地』, 1-11
1947	『朝鮮開化秘譚』, 서울: 正音社, 1947(1946.9 序)
1947~1949	보차로프(Bochalov, L. A.)·요아니시아니 共著, 金永鍵·朴贊謨 共譯, 『唯物史觀 世界史教程』, 서울: 白楊堂
1947.1	“民族文學의 眞髓”, 『新天地』, 12

21) 『진단학보』 제16호(1949.1)의 “취보”에 의하면, 『作品과 人生』은 을유문화사에서 출판될 예정이었으나(近刊), 현재로서는 실제의 출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47.2	“學問과 政治性”, 『新天地』, 2권 2호 “英譯된 九雲夢”, 『百濟』(백제사), 2권 1호(1947.2)
1947.3	“語錄1”, 『우리文學』(우리문학사), 3
1947.3.13	“詩集 讚歌”, 『文化日報』
1947.4	金永鍵 譯, “藝術的 想像의 範疇”(『쏘비에트』作家同盟 歷史部の 講義), 『文學』, 제3호
1947.4.6	“내가 본 若山 將軍”, 『文化日報』
1947.5	“『꽃기』가 본 獨逸의 軍國主義”, 『白民』(白民文化社), 제3권 3호
1947.5.27	“두 분 畫伯을 弔함”, 『文化日報』
1947.6.26	“歷史的인 會場에서”, 『文化日報』
1947.9	“(附錄)바리시대의 洪宗우: 불국문헌에서”, 閔泰瑗, 『甲申政變과 金玉均』, 서울: 國際文化協會
1948.3	“壬辰倭亂과 遣日使節”, 『향토』(正音社), 8
1948.4	뷔똔 니꼴라예브, 金永鍵 譯, “『쏘비에트』文學의 發展과 諸問題”, 『文學』(조선문학가동맹), 第七號
1948.6	『文化和 評論』, 서울출판사
1948.7	『黎明期の朝鮮』, 正音文庫, 서울: 正音社
1949.1	“한글에 關한 斷想”, 『한글』(한글학회), 제105호
1949.1 이후	『作品과 人生』, 乙酉文化社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방 직전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김영건의 저술 활동은 조선의 대외관계사 이외에도 문학적 방면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면 김영건이 역사학적 작업 이외에 문학적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1947년 8월 서울의 백양당(白楊堂)에서 간행된 김영건의 『어록』은 그 단서가 될 수 있다. “젊은 날을 고이 장사지내노라!”라고 천명했던 그는 『서』에서,

이 어록의 부제목은 1942-1944년의 유서다.
부르조와 사회의 부패한 위선적인 도덕률에 대하여 나는 무한한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나는 이 묵은 원고를 발표함으로써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김영건 1948c: 3, 101). 1942-1944년 시기의 단상들

을 두세 줄의 문장 혹은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적어나간 『어록』은 당시의 부르주아 사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 청산을 위한 새로운 윤리와 도덕률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미 1941년 초반에 베트남인의 사상 변천 과정을 ‘보수사상’, ‘민족사상’, ‘민주사상’, ‘좌익사상’으로의 발달로 파악한 바 있던 김영건은 “내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불합리한 사회인 부패한 도덕이다”라고 부르주아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김영건 1941a: 72-76; 김영건 1948c: 12, 30).

“나 혼자 괴로움을 당해서 해결을 지을 수만 있다면, 뒤에 올 젊은 이들이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괴로움이나 자진해서 다 당해 보겠다”는(김영건 1948c: 46) 이타적인 자세는 학문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는 하루에 몇 번이고 양심에게 물어 보는 말이 있다.

“무엇 때문에 학문을 하느냐?”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대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하지만, 흔히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도 같고, 학문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어록』은 소개하고 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학문은 우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김영건 1948c: 21).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움직이는 것이다. 생명이 움직여서 죽음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생명의 연장이다.

등과 같은 “이 따위 관념적인 말만의 철학”을 부정하고 있었다(김영건 1948c: 34-35).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한 낱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문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김영건 1948c: 21).

이러한 도구로서의 문학은 사람의 마음이 몸보다 귀중하다면서 실제로는 몸을 위해 마음을 희생시키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인위적인 비극을 부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시흥에 혼자서나 취해 있는 “불관서 상중과”의 시인이 되기보다는 시를 쓰지 않고 차라리 아편대나 물고 들어 누어있겠다고 천명했다(김영건 1948c: 57-58). 그래서 김영건은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에 자신을 포함한 “조선의 문학가들이 활발한 투쟁을 계속하지 못했던 과오를 솔직하게 자기 비판하는 동시에 지하 또는 지상에서 역전(力戰)과 혈투의 경력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들이 지시해주는 코-쓰에 의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를 양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실하게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김영건 1945a: 37).

이처럼 원래 친숙했던 역사학적 방법론에 도구로서의 문학적 수단을 채용하게 된 김영건은 “어떤 때에는 나에게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조금만 더 여유가 있어주었으면 하고 어이없는 꿈을 꾸어 본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꿈은 나의 일생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는 않고 하여 나는 일상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면서 학문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깨달았다”고 술회하고 있었다(김영건 1947a: 4). 결국,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해방 이후 김영건의 주된 활동은 진단학회 내에서의 학문적인 활동 이외에도, 당시 좌익계 문학가들과의 제휴를 통한 적극적인 현실 참여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영건은 1945년 9월 17일에 발족된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에서 김태준(1905-1949), 권환, 이원조, 박세영(1909-?), 이태준(1904-?), 임화(1908-1953), 김남천(1911-1953), 안희남(1909-?), 김기림(1908-?),

박찬모 등과 함께 조직 위원으로 선출되었다(김혜니 2002: 23). 또한, 1945년 10월 22일에 결성된 ‘신예술가협회’에도 참여하여 오장환(1918-1948), 함세덕(1916-1950), 조규봉(인천 태생으로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조각가), 김만형(개성 태생으로 동경 제국미술학교 출신의 화가), 최재덕(경남 산청 태생으로 동경 태평양미술학교 출신의 화가), 서정주, 그리고 흑인으로 추정되는 린우드 E. 브라운 등과 함께 평론가로써도 활동했다(대중일보 45/10/22; 윤영천 1989: 208).

한편, 1945년 8월 18일 조직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1945년 9월 30일에 결성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통합이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45년 12월 6에는 통합을 위한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이 두 단체를 아우르는 ‘조선문학가동맹’이란 가칭이 정해진 이후 12일에는 『조선문학의 지향』이란 주제로 좌담회가 개최되었는데, 김영건도 여기에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용 1989: 138-141). 그리고 13일의 모임에서는 정식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이 결성되고 전국문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 결정되었는데, 김영건은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의 서기장 직을 맡았으며 김태준, 권환, 이원조, 임화, 한효, 박세영, 이태준, 김남진, 안희남, 김기림, 박찬모 등과 함께 전국문학자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자유신문 45/12/25). 이후, 1946년 2월 8·9일 이틀 동안 제 1회 조선문학자대회가 서울 종로 YMCA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김영건은 소련 작가동맹 니콜라이 치호노프의 메시지를 낭독한 이후에, 9일 오전 11시에 속개된 대회에서 “세계 문학의 과거와 장래의 동향”이란 제목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소련, 미국, 중국의 문학운동을 언급하고 세계 문학의 장래 동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조선일보 46/2/10, p. 2; 김영건 1946a: 111-128).

1946년 봄부터 가을까지 김영건의 언론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조선문학가동맹 부의장 이태준이 1946년 3월 25일에 창간한 『현

대일보』의 활동에도 참가하여 외보(外報)를 책임지게 되었고, 『예술통신』의 후신으로 1947년 3월 11일에 창간된 『문화일보』에서는 주필로 활동하게 되었다(이태준 2005: 27; 이재인 1997: 192; 송건호 1983: 557).²²⁾ 『어록』에는 당시 기자들의 무지함을 한탄하면서,

짜어날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나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을 이르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검열관이 있다. 그 하나는 정부의 관리요, 또 하나는 신문이나 잡지를 편집하는 기자다. 우리에게는 다음 것이 더욱 말썽일 때가 많다.
짜어날리스트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가 아니라 시인의 이름이요,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의 이름뿐이다.
남자의 매춘부는 지식계급의 짜어날리스트다.

등과 같은 혹독한 비평을 받고 있었는데(김영건 1948c: 14, 27, 62), 김영건 본인이 몸소 저널리스트로서 언론계에 투신한 것을 보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는 문학적 활동이 저널리즘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47년 김영건의 활동은 전국문화단체총연맹(이하 문련)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좌익진영이 문학가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연합하여 결성한 문련에서 김영건은 2월에 대표로 선출되었다(김윤식 1985: 467). 또한, 3월 17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²³⁾이 ‘세계노련극동조사단’ 일행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고자 ‘민주주의정당단체연합 세계노련극동조사단 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했

22) 『현대일보』는 미군 사령부 포고 제2호를 위반해서 1946년 9월에 정간 처분을 받았다.

23) 약칭 ‘민전(民戰)’으로도 부른다. 1946년 2월에 남한의 모든 좌익 정당 및 사회단체를 총집결하여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좌익단체의 민주적 연합체 형태를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공산당에 의해 움직였다.

는데, 김영건도 접대부 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다(서울신문 47/3/19).²⁴⁾

그런데 1948년에 이르러 김영건의 활동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남로당 중심부를 포함해서 문련의 지도자였던 임화도 월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리인이었던 김영건은 위원장으로서 문련의 명맥만 유지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1948년 2월 13일 당시 조직의 약화를 감출 수 없었던 김영건은 이 사실과 여건의 불가피함을 북쪽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김윤식 1985: 467-468). 이후, 김영건과 관련된 남한에서의 행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언젠가 월북했다는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권영민 1990: 241).²⁵⁾

1940년에 귀국하여 한동안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1945년 해방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학문 활동과 본격적인 현실 참여를 병행하고자 했던 김영건은 1948년 2월을 전후해서 문단과 언론을 통한 자신의 의사 표현과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자, 선학들의 독려로 원래 계획하고 있던 학문 연구 쪽으로 조금씩 회귀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미 1947년 9월에 “파리(巴里)시대의 홍중우: 불국문헌에서”를 발표했던 김영건은 1948년 3월에는 “임진왜란과 건일사절”을 소개하며 대외 관계사 연구를 재개했다. 1948년 6월과 7월에는 『문화와 평론』과 『여명기의 조선』을 각각 발간하여 그간의 학문성과를 정리하고, 1949년 1월에 발표된 『한글에 관한 단상』을 끝으로 그의 공식적인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1930-40년대의 하노이 체류와 고국에서의 활동이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가에 대해 그 과

24) 당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허성택, 부위원장 박세영·노진한·이인동, 총무부 현훈·김정홍 외 16명, 접대부 이성백·김영건·문예봉 외 27명, 연락부 박병일·주병보 외 16명.

25) 임동권은 “해방 후의 혼돈은 문단에도 심했고 경향성 있는 논조로 보아 6·25동란 후로 생사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임동권 2004: 285).

정과 의미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IV.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

조흥국은 김영건의 동남아시아 연구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수립에 연루되어 있는 그 어용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조흥국 2001: 49). 그러나 김영건의 하노이에서의 행적과 베트남 연구의 성과를 보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조흥국의 평가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우선, 김영건 개인은 공식적으로는 일본 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을 일본 학술지에 발표할 때를 제외하고는, ‘Kin Ei-Ken’이라는 이름 대신에 ‘Kim Yung-kun’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항상 사용했다.²⁶⁾ 또한, 일본이나 한국 관련 도서의 서지 목록을 작성할 때에도, 1910년 이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漢城’을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京城’이라는 지명도 항상 ‘Séoul’로 바뀌어 표현되었다. 아울러, 출판연도를 표시할 때에도 ‘大正’이나 ‘昭和’라는 일본식 연호를 쓰지 않고, 서력으로만 나타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본다면, 김영건은 식민지 조국을 떠나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하노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김영건의 베트남 관련 연구는 1932년경부터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6) 『진단학보』의 제10권과 제15권 영문 표지에는 각각 ‘Kim Yeung-Keun’과 ‘Kim Young-Kun’을 사용하기도 했다.

<표 4>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와 관련된 저술 목록

발표시기	기사명 / 논문명 / 저서명
1932.7	“遠東博古學院とその近況”, 『史學研究』(廣島文理科大學內 廣島史學研究會), 第四卷 第一號
1934.10	“東洋學史論”, 『青年朝鮮』(青年朝鮮社), 第1卷 第1號
1936.1	“日本見聞録について”, 『民族學研究』(日本民族學會), 第二卷 第一號
1936.7.1-2	“安南遊記(一)·(二): 安南의 文壇(上)·(下)”, 『東亞日報』
1936.7.3·5·7·9	“安南遊記(三)·(四)·(五)·(六): 安南의 古都”, 『東亞日報』
1936.7.10	“安南遊記(七): 占城의 文化”, 『東亞日報』
1936.7.11-12	“安南遊記(八)·(九): 安南의 서울 順化(上)·(下)”, 『東亞日報』
1937.2.14·16-19	“安南通信: 建國神話(一)·(二)·(三)·(四)·(五)”, 『朝鮮日報』
1937.8	“雲屯と日本人”, 『歴史學研究』(歴史學研究會), 第七卷 第八號
1938.7	“安南の史料に現はれたる顯貴の名に就て”, 『史學研究』, 第十卷 第一號
1938.8	“安南松本寺釣り鐘と泰徳通寶”, 『史學』(慶應義塾大學文學部內 三田史學會), 第十七卷 第一號
1939.4	“安南普陀山名考”(中文), 『震檀學報』(震檀學會), 第十卷
1939.7	“迦知安に於ける日本人の十字架”, 『歴史學研究』, 第九卷 第六·七號
1939.9	“佛領印度支那東京興安に於ける舖客に就いて”, 『史學』, 第十八卷 第一號
1940.1	“印度支那の安息香”, 『小川香料時報』(大阪: 小川香料店), 第十三卷 第一(一五三)號
1940.3	“柬埔寨の香水に就いて”, 『小川香料時報』, 第十三卷 第三(一五五)號
1940.7	“『印度支那雜誌』香料研究”, 『小川香料時報』, 第十三卷 第七(一五九)號
1940.8·9	“桃山時代から江戸時代に至る日本とトンキンとの貿易關係”, 『臺灣時報』(臺灣時報發行所), 第二十二卷 第八·九號
1940.9	“遠東博古學院と印度支那の研究”, 『大陸』(改造社), 第三卷 第九號
	“安南沱瀆の日本町”, 『史學』, 第十九卷 第二號
1940.10	“鎖國後に於ける日本と東京(トンキン)との關係”, 『史學研究』, 第十二卷 第二號
1940.12	“占城(チャムパ)と日本”, 『東亞學』(東京: 日光書院), 第參輯
1941	“Un prince annamite réfugié en Corée au XIIIe siècle,” <i>Young East</i>

	(Tôkyô: The International Buddhist Society of Japan), v. IX, 2 (1941)
1941.2	“安南人の思想과 그 傾向: 現地通信”, 『人文評論』(人文社), 3권 2호 “對佛印人文化政策について”, 『臺灣時報』, 第二十三卷 第二號 (1941.2)
1941.4	“東洋學を語る”, 『新亞細亞』(滿鐵東亞經濟調查局), 第三卷 第四號
1941.5	“南洋과 列國의 經濟的 活動”, 『朝光』(朝鮮日報社出版部), 7권 5호
1941.6	“佛領印度支那의 文化事業”, 『國際文化』(東京: 國際文化振興會), 第十四號
1941.7.7	“安南의 童話: 날러다니는 풀”, 『每日申報』
1941.7.10-12	“安南의 言葉と文字”, 『臺灣日日新報』(臺北: 臺灣日日新報社), 第一四八四七·一四八四八·一四八四九號
1941.8	“故、ノエル・ベリ氏を憶ふ”, 『國際文化』, 第十五號 “安南に於ける 佛敎の傳來”, 『海外佛敎事情』(國際佛敎協會), 第七卷 第三號 “佛印의 佛敎座談會”(座談會), 『海外佛敎事情』(國際佛敎協會), 第七卷 第三號
1941.9	“佛印의 紹介書”, 『大洋』, 第三卷 第九號 “東亞의 佛敎圈을語る 座談會”(座談會), 『國際評論』(日本外事協會), 第六卷 第九號 “對佛印文化工作의 方法と目標, 知識分子に働きかけよ”, 『新亞細亞』, 第三卷 第九號
1941.10	“佛印日本人”, 『大洋』, 第三卷 第十號 “東洋史前學會議의 檢討”, 『新亞細亞』, 第三卷 第十號
1941.11	“安南花山君李龍祥의 事蹟”, 『史學』, 第二十卷 第二號
1941.12	“安南に於ける 浦島의 傳説”, 『民族學研究』, 第七卷 第三號 “印度支那人類研究所의 事業と其의 意義”, 『民族學研究』, 第七卷 第三號 “近世に於ける 安南佛敎とその發展”, 『海外佛敎事情』, 第七卷 第五號
1942.3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歷史學研究』, 第十二卷 第三號
1942.6	『日·佛·安南語會話辭典』, 東京: 岡倉書房
1942.8	杉本直治郎·金永鍵, 『印度支那に於ける 邦人發展의 研究: 古地圖に印されたる 日本河に就いて』, 東京: 富山房
1942.10	“安南語의 ために”, 『南洋經濟研究』, 第五卷 第十號
1942.11	“占城의 시ヴァ敎”, 『海外佛敎事情』, 第八卷 第三號
1942.12	“柬埔寨의 寺小屋”, 『海外佛敎事情』, 第八卷 第四號
1943.2	“安南의 多妻制度”, 『民族學研究』, 新第一卷 第二號

1943.3	“安南の仏教と祭祀”, 『大法輪』, 昭和18年 3月號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 東京: 富山房
1946.12.31	“金永鍵氏 談: 보라! 越南人民抗爭 - 崎嶇한 運命 朝鮮과 恰似”, 『朝鮮日報』
1947.3.14	“나와 印度支那 生活”, 『文化日報』
1947.5	조르즈 쎬대스, 金永健 譯, “第七~十三世紀의 南海帝國”, 『震檀學報』(震檀學會), 第十五號
1948.7	“蒙古兵을 擊退시킨 花山郡 李龍祥의 事蹟”, 『黎明期の朝鮮』, 正音文庫, 서울: 正音社 “安南國使臣 唱和問答錄”, 『黎明期の朝鮮』 “濟州道民의 安南漂流記”, 『黎明期の朝鮮』

1932년 7월 프랑스 원동학원의 성장 과정과 근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 김영건은 1934년 10월 『청년조선』에 발표된 “동양학사론”을 통해, 동양학의 범주에서 중국학, 인도지나학 그리고 인도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인도지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 두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金永鍵 1932: 125-135; 김영건 1934: 17-19). 이러한 관점은 다분히 프랑스 원동학원 소속 연구자들의 학문적 경향을(Bouchez 1995: 178)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후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는 한국 언론을 통한 베트남 알리기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1936년 7월 1일과 12일 사이에 “안남유기”라는 제목으로 7편의 시리즈 기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했다. 1일과 2일에 발표된 “안남유기: 안남의 문단”에서는 베트남 문단의 상황을 먼저 논하기에 앞서, 베트남어의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건에 의하면, 중국어와 같이 “安南말”도 모노실라빅(Monosyllabic)한 말인데, 이두와 비슷한놈(Nôm, 喃)에 대해서도,

즉 ‘셋’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ba)라고 하는데, 喃으로 쓸 때는 𠵼으로 셋이라고 하는 ‘三’자와 홑으로 ‘바’라고 하는 ‘巴’자를 합쳐서 𠵼라고 쓰고 읽기는 ‘바’라고 하며 뜻은 ‘셋’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로 풀이하면서 상세히 다루었고, 높을 이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응우옌 주(Nguyễn Du, 1765-1820)의 걸작 *Kim Vân Kiều*(金雲翹)를 들었다. 또한, 베트남 꾸옥 응우(Quốc ngữ, 國語)의 발전과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팜 꾸인(Phạm Quỳnh, 1892-1945)의 *Nam Phong*(南風) 잡지, 저명한 불문 번역가 응우옌 반 빈(Nguyễn Văn Vĩnh, 1882-1936), 한학자로서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레 즈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넷 린(Nhật Linh, 1905-1963) 등과 같은 보다 젊은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1932년 성립된 문학운동 단체인 트 록 반 도안(Tự Lực Văn Đoàn, 自力文壇)의 활동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극예술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어서, 『동아일보』의 1936년 7월 3·5·7·9일자에서는 “안남유기: 안남의 고도”란 제목으로 18세기 말엽까지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였던 하노이의 역사를 주변 지역의 역사와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10일자와 11·12일자에서는 “안남유기: 점성(占城)의 문화”와 “안남유기: 안남의 서울 순화”라는 주제로 중부 다 냥을 중심으로 남부로 발전해 갔던 참파(Champa) 왕국의 역사와 19세초부터 응우옌 왕조(阮朝, 1802-1945)의 수도였던 후에(Huế)의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김영건의 베트남 알리기는 『조선일보』를 통해서도 진행되었다. 1937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安南通信”을 게재하여 중국의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부터 시작되는 베트남의 건국신화에 대해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서술했다.

한편, 하노이 체류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게 된 김영건의 관심은 베트남-일본 관계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⁷⁾ 먼저, 1936년 1월에 발표된 “日本見聞録について”

(『民族學研究』第二卷 第一號)를 들 수 있다. 원래, 음력 1815년 4월 사이공(Sài Gòn)에서 후어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일본 큐슈의 “하처(何處)”까지 표류하게 된 당 흐우 보이(Đặng Hữu Bôi, 鄧有杯), 응우옌 주이 바오(Nguyễn Duy Báo, 阮惟寶) 등이 현지에서 본 각종의 풍속, 제도, 문물 등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을 1828년 조정의 관리 쓰엉당 꾸에(Trương Đăng Quế, 張登桂)가 『日本見聞錄』이란 제목으로 다시 정리해 놓았는데, 김영건은 당시 프랑스 원동학원에 보존되어 있던 8장의 사본을 발굴하여 표점을 찍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여 재출간하게 된 것이었다(松本信廣 1936: 66-67).

일본인들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1937년 8월에 『歷史學研究』에 “雲屯と日本人”이란 글을 발표했다. 김영건은 뒤무띠에(Gustave Dumoutier)가 1895년 *Bulletin de géographie historique et descriptive*(Paris, vol. 10)에 게재한 “Les comptoirs hollandais de Phô-hien ou Phô-khach, près de Hưng-yen (Tonkin) au XVII^e siècle”를 근거로, 일본 상인들이 왔었다고 추정되는 번 돈(Vân Đồn, 雲屯)이란 지역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하고자 했다.²⁷⁾ 약 1년 후인 1938년 7월에 간행한 “安南の史料に現はれたる顯貴の名に就て”는 1931년 5월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당시 김영건은 “『大南寔錄前編』에 보이는 ‘顯貴’라는 일본 이름이 일본 자료에 나타나는 ‘白濱顯貴’가 아닌가”라는 레 즈의 질문을 받고, 『通航一覽』과 『外蕃通書』와 같은 일본 측 사료를 근거로 16세기의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했다(金永鍵 1938a). 또한, 16세기 후반부터 일본 국내의 기독교 탄압을 피해 베트남의

27)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마쯔모토 노부히로(松本信廣), 스기모토 나오지로, 야마모토 다쓰로(山本達郎), 후루노 기요토(古野清人) 등의 후원에 힘입어 『民族學研究』(日本民族學會), 『歷史學研究』(歷史學研究會), 『史學研究』(廣島文理科大學內 廣島史學研究會), 『史學』(慶應義塾大學文學部內 三田史學會) 등에 발표되었다(金永鍵 1943a: 2).

28) 야마모토 다쓰로는 김영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39년 1월 『安南の貿易港雲屯』이란 논문을 『東方學報』(東京: 東方文化學院) 第9冊에 게재했다.

해변으로까지 이주해 와서 ‘일본정(日本町)’을 건설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연구 영역이 점차 확장되었다(金永鍵 1939b).

김영건의 베트남-일본 무역 관계에 대한 관심은 17-18세기로까지 넓혀졌다. 먼저, 17세기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에 세운 송본사(松本寺)의 조종(釣鐘)이 18세기 후반에 출현한 띠이 썬(Tây Sơn, 西山) 정권에 의해 태덕통보(泰德通寶)를 주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金永鍵 1938b). 그리고 동시대 하노이와 흥옌(Hưng Yên)에서 활동한 일본 상인들의 활약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金永鍵 1939c).

김영건의 베트남-일본 관계사 연구는 참파 왕국에 대한 연구로까지 발전되었다. 1938년 5월 17일 밤 하노이²⁹⁾에서 탈고하여 이듬해 『진단학보』에 발표된 “安南普陀山名考”에 의하면,³⁰⁾ 1933년 김영건은 세데스와 함께 다낭의 포다(Phố Đà) 산(普陀山)으로 사적 답사를 갔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서 발견한 각종 비명(碑銘)과 중국 측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타산의 명칭은 관세음보살이 자주 왕래하여 노닐던 인도의 포타라카(Potalaka 혹은 Potaraka로 표기) 산을 음차한 것이기 때문에, 1925년 살레(A. Sallet) 박사가 ‘보타산’을 ‘La Montagne de l'universel escarpement’으로 직역한 것은(Sallet 1925: 9, 130)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 중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반에 거쳐 형성된 참파 왕국과 일본과의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金永鍵 1940).

1940년 후반에 귀국했다가 이듬해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29) 본문에는 “古都 다이 라(Đại La, 大羅)”로 적혀 있다. 다이 라 성은 11세기 초에 리(Lý, 李) 왕조(1009-1225)의 수도였는데, 이름이 탕 룡(Thăng Long, 昇龍)으로 바뀌었다가, 1831년부터 하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30) 이병도는 『진단학보』 제10권(1938.7)의 “편집후기”에서, “편집 형편상 할 수 없이 다음호로 밀게 되었다”고 사정을 밝히고 있다.

는 베트남의 동화와 전설을 소개하는(김영건 1941b: 4; 金永鍵 1941b) 한편, 베트남의 다처제도와 불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시작했다(金永鍵 1943b; 金永鍵 1943c).³¹⁾ 아울러, 1942-1943년 사이에는 그간의 연구 성과가 세 종류의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김영건은 하노이에 체류할 당시인 1931년과 1933년에 각각 스기모토 나오지로와 마쓰모토 노부히로(松本信廣)를 알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자신이 수집한 다양한 베트남 남부 관련 지도를 바탕으로 스기모토와 함께 1942년에 『印度支那に於ける邦人發展の研究』를 발간하였으며, 1943년에는 유명한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를 학계에 선보였다(杉本直治郎·金永鍵 1942: 1-2; 金永鍵 1943a: 1).

『印度支那に於ける邦人發展の研究』에 의하면 일본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동남아의 주요 항구들에 정착하여 사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증대되었는데, 17세기 초가 되면 당시 캄보디아의 수도인 우동(Oudong)의 외항(外港)이었던 폰허어루(Ponhea-lu)뿐만 아니라 프놈펜에도 소위 ‘일본정’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제17지도’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었다.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는 그간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베트남-일본 관계나 태국의 역사 혹은 베트남사 자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베트남-한국 교류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 리 왕조의 황자 리 롱 뜨엉(Lý Long Tường, 이용상)에 대한 전설은 이미 익명의 기고가에 의해 『조선일보』 1927년 2월 22일자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었는데, 김영건은 1936년 여름 옹진을 방문해서 들은 전설과 『화산군가보(花山君家寶)』, 『화산이씨세보(世譜)』, 『화산군본전(本

31) 『어록』(88-89)에는 베트남의 다처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크리스토폴·보를리 신부가 안남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일부다처제도를 반대하니 그곳의 주민들이 말했다. 재산이 있고도, 아내를 하나밖에 안 데리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욕심쟁이다. 재산이 있어, 여러 아내들을 구제해 준다면 그 또한 적선 사업이 아니냐고.”

傳』, 『옹진부읍지(甕津府邑誌)』 등과 같은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상(李龍祥)의 사적(事蹟)’을 역사화시키는 데 공헌했다. 1921-1922년 당시 옹진군 군수의 차남이었던 소년 김영건의 체험과 기억이 자신의 본격적인 베트남 연구를 통해 되살아난 것은 아니었을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김영건의 『日·佛·安南語會話辭典』(東京: 岡倉書房, 1942, 270 p.) 편찬이다. 이 사전은 총설, 문자, 발음, 문법과 그 특징, 관용어구, 일상어 예문, 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독본을 포함하고 있어서 베트남어 교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이 독본에는 인도차이나총독부 학무국에서 편찬한 이동용 『국문교과서』에서 발췌한 “Tôi đi học”(학교에 간다), “Cánh đồng nhà quê”(전원), “Sài Gòn và Chợ Lớn”(사이공과 찌 런)과 『국문사기(史記)교과서』에서 뽑은 “Ông Nguyễn Kim”(阮滄翁) 이외에도 *Nam Phong* 제174호(1932.7)에 실렸던 팜 꾸인의 논설, 넷 린의 소설 *Đoạn Tuyệt*(斷絶), 응우옌 주의 *Kim Vân Kiều*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어 학습을 통해 베트남의 일상, 역사, 문학을 동시에 이해시키려 했던 김영건의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1946년 11월까지 베트남과 관련된 김영건의 연구는 단절되었는데, 『어록』에만 단편적으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관한 짧은 노트들이 발견될 뿐이다. 예를 들면,

안남왕의 궁전에서 총독이 주최한 무도회가 열렸다. 총독이 왕후더러 “어찌해서 당신은 춤을 추지 안하십니까?”하고 물으니까, “나는 춤을 즐기려면 춤추는 계집애들을 불러다 춤을 추게 하고 볼 따름이지 내가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라고 왕후는 대답을 했다.

라는 남 프엉(Nam Phương) 황후의 당찬 일화를 소개하거나(김영건 1948c: 29),

나는 남양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물질적 경제적 사회제도나 또는 그 조직이 아직 발달되지 못하고 원시적 그대로의 순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애정의 심리를 연구해 보고 싶다.

라고 하여(김영건 1948c: 33), 동남아시아 연구에 대한 인류학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마도 해방을 전후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현실 정치로의 투신은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김영건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기관지인 『문화전선』 창간호(1945/11/15)에서 세계문화의 임무로 “첫째, 제국주의국가에게 점령되고 전쟁의 참화를 입었던 제지역의 복구와 발전에 협력할 것과, 둘째, 아직 잔존해 있는 반동적 제국가와 그 문화에 대한 투쟁에 협력할 것” 등을 지적하게 되었다(김영건 1945b).³²⁾ 이러한 김영건의 반제국주의 연대의식은 1946년 12월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월남’의 인민항쟁을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운명과 흡사한 ‘월남’의 경우를 예의주시할 것을 요구했다(김영건 1946b). 그런데 당시 ‘월남’이 국제신탁을 자원하였으나 국제문제화되지 않고 결국은 1946년 2월 월남공화국의 자치정부로서 승인받게 되었던 점과 프랑스 국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부 룬”이 주도하는 공산당 내각이 월남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은(김영건 1946c) “양보와 협조”에 의한 좌우익의 “민족통일전선”을 제창하다가 당시 한국의 현실 정치에 깊숙이 매몰되어 좌익진영의 신탁통치를 현실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김영건의 고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32)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이 중심이 되어 1945년 8월 16일 종로 한청빌딩에서 발족되었던 단체였다(김재용 1989: 140).

33) 김영건은 1946년 4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면, 오늘 조선에 민족통일전선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략] 진보적 ‘데모크라씨’의 협조정신에 의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건이 “조르즈 쉐대스”의 논문을 번역하여 1947년 5월 『진단학보』제15호에 실은 “제7~13세기의 남해제국”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미 1941년 5월에 “남양과 열국의 경제적 활동”이란 글에서 태국, 인도차이나, 포르투갈령 티모르, 네덜란드령 제도의 경제 상황을 식민지 모국의 정책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던 김영건 자신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김영건 1941c; 조르즈 쉐대스, 김영건 역 1947: 150).

이제 나는 쉐대스 박사의 생전에 다시 한번 그를 만나 그의 해박한 훈도를 받고 싶은 것이 큰 소원의 하나이나,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그의 찬란한 인도지나와 남해사의 연구는 나의 ‘동서문화교섭사상(東西文化交涉史上)에 있어 남방의 지위’라고 하는 연구의 ‘출발점’이 되겠기에, 이에, 일찍이 나의 손으로 번역하여 다른 곳에 게재했던 일문(一文)을 다시 정정하여 우리글로 발표하는 바이다.

여기에서 제기한 동서문화 교섭사에 있어서의 남방의 지위라고 하는 연구의 출발점은 실제 “남방문화연구”란 글을 통해 『진단학보』제17호에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본호를 편집하여 인쇄를 기다리던 중 6·25사변이 일어나 원고조차 병화(兵火)에 소실되고 말았던 것이었다(이병도 1949: 280; 진단학회 편 1994: 21, 91). 베트남을 출발점으로 삼아 확장되어 가던 김영건의 연구는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되어 가길 기대했지만, 해방 이후의 격동적인 정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자 했던 김영건 자신의 현실 정치와 사회로의 양가주망, 그리고 전란으로 빚어진 혼란은 과학적인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

좌우양익이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고는 남이 강압적으로 시켜주는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는 신탁이니 무엇이니 하고 떠들 낫잖도 없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김영건 1946c: 14).

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1920년대 초반부터 추적할 수 있는 김영건의 생애를 통해 그의 베트남 연구 동인과 그 성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좌익 사상에 영향을 받은 문학청년 김영건의 삶은 1931년의 하노이 정착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 국적의 프랑스 원동학원 한국인 사서는 10년에 걸친 현지 경험에 의해 베트남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더욱 친숙해지면서 다방면에 걸친 ‘베트남학’을 선도할 수 있었다. 193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 왕성한 연구 성과물을 세상에 내 놓을 수 있었던 김영건의 학문 역정은 1945년 해방을 전후하여 현실적인 굴곡과 굴절을 겪으면서 소위 ‘남해사’ 연구와 같은 ‘동남아학’ 개척이라는 임무를 미완의 상태로 남겨 두게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학’에서 ‘동남아학’으로의 인식 확대에는 ‘조선학’에 대한 김영건 자신의 실존적인 훈련 과정이 내재되어 있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어, 조선사를 비롯하여 순조선문학”을 조선학의 범주로 생각하고 있던 문일평의 영향을(문일평 2001: 15-16) 받았을 법한 김영건은 1946년 당시에,

아직 조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성립이 되지 못했지만 조선에 관한 외국의 사료들도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들을 모두 섭렵하려면 영·불·독·로·화·포·서등 다수한 언어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라비아·몽고·만주·여진등의 현대어와 고대어가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업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처녀지와 같이 남아 있는

이 분야는 반드시 우리들의 손으로 그 초창기나마 개척해 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김영건 1947a: 3-4), ‘조선학’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조선에 관한 외국 사료들을 수집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현실 속에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1948년 간행된 『여명기의 조선』은 김영건 개인에 의한 ‘조선학’ 구축 노력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외교류사에 대한 통시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본서의 내용은 아라비아와 신라, 포르투갈과 고려, 리 롱 트영, 풍 각 코안과 이수광, 레지이 신부와 조선, 만주와 조선, 임진왜란 당시의 견일사절, 콕스가 바라 본 조선의 대외 무역, 제주도민의 안남표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트남 연구를 하던 과정 중에 확장되어 간 필자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0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학 연구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을 ‘조선학’의 정립에도 적용시켜 보고자 했고, ‘조선학’ 연구에서 알게 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대외 관계는 김영건으로 하여금 보다 확대된 시각에서의 ‘동남아’로의 귀환을 추동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김영건의 ‘동남아’로의 귀환 과정은 ‘동남아’와의 학문적인 상호 소통의 장을 출현시킨 흥미로운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동유운동’에 참가했다가 1914년 일본에서 귀국하는 길에 평양 등지를 방문하며 현지의 풍물을 감상했던 레 즈는 “조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1년 한국에서 온 동료와 함께 『大南寔錄前編』을 읽거나 쓰놈을 가르쳐주는 등의 학문적 교류를 하며 김영건의 절친한 선배가 될 수 있었다(Sở Cường 1997: 23-24; Sở Cường 1932: 495-498). 이러한 양자의 교류 관계는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레 즈의 한국 연구에서도 적용되어 나타났다. 베트남 사람들은 1942년 잡지 *Tri Tân*에 발표된 레 즈의 소개 글을 통해, 베트남 출신의 이씨가 한국에 살고 있으며 황자 리 룡 뜨엥이 그들의 시조임을 알 수 있었다(Phan Huy Lê 2007: 19). 마찬가지로 양국의 교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료 쩐 반 잠도 조선과 베트남 사신이 주고받은 상당수의 시문들을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다(Hội Khảo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1997: 135-136, 140, 144-145, 151-193, 203-205-243). 또한, 1959년에 평양을 방문한 쩐 반 잠은 현지에서 수집한 리 룡 뜨엥 관련 자료를 귀국한 이후 현 베트남 역사학회 회장인 판 후이 레(Phan Huy Lê)에게 소개했는데, 레 교수는 이것이 인연이 되어 12세기 이래 고려에 정착한 베트남 출신의 정선(旌善) 이씨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Phan Huy Lê 1997: 15; Phan Huy Lê 2007: 19-34; 역사과학편집부 1959, 66-67).

본고에서 소개한 1930-40년대 김영건의 인생 역정과 베트남 연구는 일개인의 특이한 경험이나 학문적 성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선구적인 노력과 학문적 결실이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계승되지는 못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차츰 살아나기 시작하여 한·베 관계사의 근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국 지식인들의 학문적 네트워크는 베트남 동료들의 ‘한국학’ 연구를 촉발시킨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상호 건설적인 공존이란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동남아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김영건(金永鍵), Kim Vĩnh Kiện, Kin Eiken, 레 즈(Lê Du), 베트남학.

〈참고문헌〉

1927. “[내고장의 인물과 전설(전21회)](16) 萬古偉動의 주인공인 안남 왕족 花山君. 옹진 李祥龍의 전설.” 『조선일보』 2월 22일.
1945. “국정교과서편찬연구위원회, 學務局에 건의서 제출.” 『자유신문』 11월 9일.
1945. “조선문학동맹 결성, 각부 위원 결정.” 『자유신문』 12월 25일.
1946. “文學의 方向을 闡明: 전국문학자대회 2일째.” 『朝鮮日報』 2월 10일.
1947. “민전, 세계노련극동조사단 입국환영준비위원회.” 『서울신문』 3월 19일.
- 경북동창회. 2007. 『2007 경북동창명부』. 서울: 경북고등학교 경북기념관.
- 경북칠십년사 편찬위원회. 1991. 『경북칠십년사(1921-1991)』. 서울: 경북동창회.
- 국학연구논저총람간행회 편. 1960. 『국학연구논저 총람』. 서울: 을유문화사.
- 권영민. 1990. 『韓國近代文人大事典』. 서울: 亞細亞文化社.
- 김려수. 1927. “編輯後記.” 『朝鮮文壇』1927(2): 789.
- 김명희. 1927a. “고요한 저녁 거리 위를.” 『朝鮮文壇』1927(2): 721.
- 김명희. 1927b. “가을이라고요.” 『朝鮮文壇』1927(2): 722.
- 김영건. 1934. “東洋學史論.” 『青年朝鮮』1(1): 17-24.
- 김영건. 1936a. “安南遊記(一)·(二): 安南의 文壇(上)·(下).” 『東亞日報』 7월 1·2일.
- 김영건. 1936b. “安南遊記(三)·(四)·(五)·(六): 安南의 古都.” 『東亞日報』 7월 3·5·7·9일.
- 김영건. 1936c. “安南遊記(七): 占城의 文化.” 『東亞日報』 7월 10일.

- 김영건. 1936d. “安南遊記(八)·(九): 安南의 서울 順化(上)·(下).” 『東亞日報』 7월 11·12일.
- 김영건. 1937a. “안남 하노이 통신.” 『한글』44(5-4): 464-465.
- 김영건. 1937b. “安南通信: 建國神話(一)·(二)·(三)·(四)·(五).” 『朝鮮日報』 2월 14·16-19일.
- 김영건. 1941a. “安南人の 思想과 그 傾向: 現地通信.” 『人文評論』 3(2): 72-76.
- 김영건. 1941b. “安南의 童話: 날리다니는 풀.” 『每日申報』 7월 7일.
- 김영건. 1941c. “南洋과 列國의 經濟的 活動.” 『朝光』7(5): 42-49.
- 김영건. 1941d. “西伯利亞와 朝鮮의 移民.” 『春秋』2(8).
- 김영건. 1941e. “海外에 紹介된 『春香傳』.” 『春秋』3(8).
- 김영건. 1945a. “再出發에 있어 文學的 自己批判: 앞으로 나갈 길을操心하라.” 『신문예』1(2): 36-37.
- 김영건. 1945b. “世界文化의 動向.” 『文化戰線』創刊號.
- 김영건. 1946a. “세계문학의 과거와 장래의 동향.” 朝鮮文學家同盟編. 『建設期の 朝鮮文學』, pp. 111-128. 京城: 朝鮮文學者大會.
- 김영건. 1946b. “金永鍵氏 談: 보라! 越南人民抗爭-崎嶇한 運命 朝鮮과 恰似.” 『朝鮮日報』 12월 31일.
- 김영건. 1946c. “民主主義의 史的 考察.” 『大潮』1(2): 4-14.
- 김영건. 1947a. 『朝鮮開化秘譚』. 서울: 正音社.
- 김영건. 1947b. “나와 印度支那 生活.” 『문화일보』 3월 14일.
- 김영건. 1948a. “壬辰倭亂과 遣日使節.” 『鄉土』1: 3-6.
- 김영건. 1948b. 『黎明期の 朝鮮』(正音文庫) 서울: 正音社.
- 김영건. 1948c. 『語錄: 一九四二-一九四四年의 遺書』. 서울: 白楊堂.
- 김윤식. 1984. “『직성행년편람(直星行年便覽)』의 불어역에 대해서 - 홍중우와 관련하여 -.” 『한국학보』10(4): 202-209.
- 김윤식. 1985. “해방공간의 문학.” 강민길 등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 2, pp. 449-492. 서울: 한길사.
- 김재용. 1989. “해방직후 남북한 문학운동과 민중성의 문제 -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63: 137-158.
- 김혜니. 2002. 『한국 현대시문학사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역사과학편집부. 1959. “학계소식: 월남 력사 학자들의 래방.” 『력사과학』6: 66-67.
- 문일평. 2001. “史眼으로 본 朝鮮(1946).” 『湖岩 文一平全集②』. pp. 1-16. 서울: 민속苑.
- Bouchez, Daniel. 1995. “프랑스 國立極東研究員의 事業.” 『아세아연구』94: 175-189.
- 서울타임스사출판국. 1946. “文學家住所錄.” 『新文學』1(2): 165-166.
- 조르즈 쎄대스, 김영건 역. 1947. “第七~十三世紀의 南海帝國.” 『震壇學報』15: 134-150.
- 송건호. 1983. “美軍政時代의 언론과 그 이데올로기.” 이영희 등저. 『한국사회연구』2. 서울: 한길사.
- 유인선. 1998. “회고와 전망(동양사): 동남아·인도.” 『역사학보』159: 220-227.
-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 유인선. 2007. “베트남 李 왕조의 후손 李龍祥의 行跡.” 『한국 베트남 관계사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pp. 68-80. 한국 역사학회 · 베트남 역사과학회.
- 윤영천. 1989. “배인철의 흑인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63: 204-213.
- 이병도. 1938. “編輯後記.” 『震壇學報』9: 543.
- 이병도. 1949. “編輯後記.” 『震壇學報』16: 280.
- 이인영. 1947. “彙報.” 『震壇學報』15: 151-154.
- 이인영. 1949. “彙報.” 『震壇學報』16: 177-180.
- 이재인. 1997. 『한국의 소설 사상사』. 서울: 문학아카데미.

- 이태준. 2005. 『이태준 전집 1』. 서울: 가람기획.
- 임동권. 1996. “김효경·김영건론.” 『한국민속학』28: 53-63.
- 임동권. 2004. “김효경·김영건론.” 『한국민속학인물사』. pp. 272-286. 서울: 보고사.
- 전경수. 1999. 『한국인류학백년』. 서울: 일지사.
- 조선문화가동맹 엮음, 최원식 해제. 1988. 『건설기의 조선문학: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 자료집 및 인명록』. 서울: 온누리.
-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47-67.
- 진단학회 편. 1994. 『震檀學會六十年誌』. 서울: 震檀學會.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2008.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1930. *Épisodes du Heiké Monogatari*. traduits par S.(Suéo) GOTO et M. Prunier, avant-propos de M. Sylvain Lévi, Paris: Ernest Lereoux.
- 1931-1939. *BEFEO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31-39.
- Clémentin-Ojha, Catherine and Manguin, Pierre-Yves. 2007. *A Century in Asia: The History of the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898-2006*. Singapore: Editions Didier Millet.
- Gutman, Pamela. 1976. “Ancient Arakan.” Ph. D. Dissertation.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Kim, Yung Kun. 연대미상. *Paul Pelliot, Deux Itinéraires de Chine en Inde : Index des noms géographiques*, Manuscrits.
- Kim, Yung Kun. 1938. “Note sur la nouvelle romanisation officielle du japonais.” *BEFEO* 38: 306-308.
- Pelliot, Paul. 1904. “Deux itinéraires de Chine en Inde à la fin du VIIIe siècle.” *BEFEO* 4: 121-403.
- Przyluski, M. J. et al., *Bibliographie bouddhique*, Paris: Geuthner, 1931.

- Sallet. A. 1925. “Les Montagnes de Marbe (Ngu-hanh son).” *Bulletin des Amis du Vieux Hue* IIe année (1924), n° 1 (janvier-mars): 8-131.
- Sở Cường (서 구옹, 본명 Lê Du[레즈]). 1932. “Chữ nôm với quốc ngữ.” *Nam Phong* 172: 495-498.
- Sở Cường. 1997. “Cháu 22 đời vua Lý Anh Tông (1138-1175) hiện ở Cao Ly.” In *Hội Khảo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eds.). *Người Việt Nam ở Triều Tiên*. pp. 23-26. Hà Nội: Hội Khảo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 Nguyễn Q. Thắng (응우옌 쩡 탕) và Nguyễn Bá Thế (응우옌 바 테). 2006. *Từ Điển Nhân Vật Lịch Sử Việt Nam*. TP. Hồ Chí Minh: Nhà Xuất Bản Tổng Hợp.
- Nguyễn Thiệu Lâu (응우옌 티에우 리우). 1997. “Ông Chủ Sự Đông Phương Bác Cổ Học Viện.” *Xưa và Nay* 40: 29-30.
- Phan Huy Lê (판 후이 레). 1997. “Họ Lý Gốc Việt ở Hàn Quốc từ Thế Kỷ XII.” In *Hội Khảo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eds.). *Người Việt Nam ở Triều Tiên*. pp. 19-34. Hà Nội: Hội Khảo Học Lịch Sử Việt Nam.
- Phan Huy Lê. 2007. “Họ Lý Tinh Thiện Một Họ Lý Gốc Việt ở Hàn Quốc từ Thế Kỷ XII.” 『한국 베트남 관계사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pp. 5-21. 한국 역사학회 · 베트남 역사과학회. 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 『生徒原簿』.
- 金永鍵. 1932. “遠東博古學院とその近況.” 『史學研究』4(1): 125-135.
- 金永鍵. 1936. “日本見聞録について.” 『民族學研究』2(1): 54-66.
- 金永鍵. 1937. “雲屯と日本人.” 『歴史學研究』7(8): 66-70.
- 金永鍵. 1938a. “安南の史料に現はれたる顯貴の名に就て.” 『史學研究』10(1): 66-72.
- 金永鍵. 1938b. “安南松本寺釣り鐘と泰徳通寶.” 『史學』17(1): 77-87.
- 金永鍵. 1939a. “安南普陀山名考.”(中文) 『震檀學報』10: 154-158.

- 金永鍵. 1939b. “迦知安に於ける日本人の十字架” 『歴史學研究』9(7)
(金永鍵. 1943.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 pp. 178-186. 東京: 富山房).
- 金永鍵. 1939c. “佛領印度支那東京興安に於ける舖客に就いて.” 『史學』18(1): 77-109.
- 金永鍵. 1940. “占城(チャムパ)と日本.” 『東亞學』4: 357-370.
- 金永鍵. 1941a. “印度支那人類研究所の事業と其の意義.” 『民族學研究』7(3): 425-433.
- 金永鍵. 1941b. “安南に於ける浦島の傳説” 『民族學研究』7(3): 358-362.
- 金永鍵. 1942. 『日·佛·安南語會話辭典』. 東京: 岡倉書房.
- 金永鍵. 1943a.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 東京: 富山房.
- 金永鍵. 1943b. “安南の多妻制度.” 『民族學研究』新1(2): 47-50.
- 金永鍵. 1943c. “安南の佛教と祭祀.” 『大法輪』.
- 內閣印刷局. 1913-1917. 『日本帝國職員錄 朝鮮總督府篇』. 東京: 內閣印刷局.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09.7.19)
- 大山幸伸. 1943. 『印度支那動亂四十年史』. 東京: 軍事教育社.
- 山本達郎. 1939. “安南の貿易港雲屯.” 『東方學報』9: 277-309.
- 杉本直治郎·金永鍵. 1942. 『印度支那に於ける邦人發展の研究: 古地圖に印されたる日本河に就いて』 東京: 富山房.
- 松本信廣. 1936. “追記.” 『民族學研究』2(1): 66-69.
- 朝鮮總督府. 1910-1914, 1916-1921, 1924.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京城: 朝鮮總督府.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09.7.19)

(2009. 7. 29 투고; 2009. 8. 27 심사; 2009. 9. 13 게재확정)

<Abstract>

Kim Yung-kun's Course of Life and Vietnamese Studies in the 1930s and the 1940s

YOUN Dae-yeong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Who was Kim Yung-kun? What made him devote himself to so many things for which he worked in the 1930s and the 1940s? And how should we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his efforts to blaze a trail in the field of Vietnamese research? These three inquiries were pursued serially in this study.

Born in 1910 and graduated in 1927 from Gyeongseong Second Superior School, Kim Yung-kun came to Hanoi in 1931 as an assistant librarian, an experience that would give him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Vietnamese history and culture with which he might be unfamiliar. Ten years later, he left Indochina and returned to Korea in order not to be involved in the Japanese military occupation of Vietnam.

Back in his country, Kim Yung-kun tried to apply himself to the Korean studies, strongly influenced by Mun Il-pyeong and some Koreanologists. On the other hand, however, after joining in with other leftists, he arose a desire for active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in order to deal with acute national problems. Since that time Kim Yung-kun endeavored to

integrate academic work with concrete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leading to a number of action research studies covering Korean history, tendency literature, criticism of arts etc.

These academic interest and militant *engagement* have originated from Kim Yung-kun's experience in Vietnam. Having devoted a part of his life to Hanoi has earned Kim Yung-kun the reputation of being an expert on Vietnamese studies and won him the enduring friendship of Lê Du. In the early 1940s, the Korean Vietnamologist also published in a book his earlier works on the Japanese relations with Vietnam, Champa and Cambodia, which he had been continuously writing since about 1936. Years later, he met with numerous difficulties when carrying out a study of Vietnam as he was deeply involved in various political movements. And so, his vision of Southeast Asia turned out to be incomplete.

Key Words: Kim Yung-kun, Kim Vĩnh Kiện, Kin Eiken, Lê Du, Vietnam, Vietnamese studies